

마태복음

■ 제자도와 공동체의 삶(231108)

1. 마태복음의 문맥

- 1.1 천국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(마 5-7, 10, 13장)
- 1.2 천국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고난: 배척, 결핍, 고난(마 14장)
- 1.3 누가 천국의 백성인가?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!
- 1.4 예수께서 왕으로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이심(17장)
- 1.5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의 공동체(18장)

2. 천국에서 높은 사람(18:1-4) → 얼마나 많이 섬기는가?

- 2.1. 17장에서 예수께서는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변화되심
- 2.2. 제자들의 세속적이고, 세상적인 관심사(마 18:1)
 - 2.2.1. 과연 누가 주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?
 - 2.2.2. 제한된 높은 지위를 경쟁적으로 획득하고자 함
 - 2.2.3. 다른 사람 위에 ()하고자 하는 못된 본성(마 20:25)
- 2.3. 예수님의 답변: “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!”(마 18:4)
 - 2.3.1. 어린아이라는 비유의 요점은 순진무구함에 있는 것이 아님
 - 2.3.2. 부모에게 전폭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()에 기초한 겸손
 - A.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함: 자기를 드러내거나, 자랑하거나, 주장하지 않음(고후 11:30)
 - B. 그리스도께 전폭적으로 의존함(엡 2:8-9)
 - C. 결국 자신의 죄인됨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각성 → 낮아짐의 크기 = 천국에서의 큰 자
 - 2.3.3. 이 낮아짐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초
 - A.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가? vs.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?
 - B. ()가 아니라 ()에 대한 선의의 경쟁 → ()이 아니라, ()가 돼라!

3. 믿음이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(18:5-14) →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돌보라!

- 3.1. 섬김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형식으로 드러나게 됨
- 3.2. (): “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함”(마 18:5)
 - 3.2.1.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을 서로 수용함
 - 3.2.2.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
- 3.3. (): “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함”(마 18:6)
 - 3.3.1. 실족은 문맥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중단하게 하는 것!
 - 3.3.2. 아마도 그를 경멸 혹은 업신여김으로써 발생하게 된 비극(마 18:10)
 - 3.3.3. 이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,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!
 - 3.3.4.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존중하고, 존귀히 여겨야 함
- 3.4. (): “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음”(마 18:12)

- 3.4.1. 일반적으로 전도와 관련해서 “잃은 양” = ()로 이해
- 3.4.2. 그러나 마태복음 문맥에서는 실족하여()로부터 떠난 사람
- 3.4.3. 일반적으로 아흔아홉 마리의 양은 다른 목자들이 돌보아 줌
- 3.4.4.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
- 3.4.5. 이는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뜻(마 18:14)!

4. 범죄한 자를 대하는 태도(18:15-20) → 단호하게! 그러나 사려깊게!

- 4.1. 형제와 자매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인가?
- 4.2. 공동체의 ()기능: 명백한 죄가 발생했을 때
 - 4.2.1. 죄를 범한 형제에게 개인적으로 권고 → 불필요한 관심이 집중되지 않도록!
 - 4.2.2. 거절했을 때에는 두세 증인과 함께 대면
 - 4.2.3.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알려 이 문제를 처리
 - 4.2.4. 끝까지 회개를 거절할 경우 극약처방으로 () (마 18:17)
- 4.3. 공동체와 개인 모두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!
 - 4.3.1.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
 - 4.3.2. 심지어 출교도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회복을 기대함(고전 5:5)

5. 형제에 대한 용서(18:21-35) → 다시 한 번 더!

- 5.1. 잘못을 뉘우친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?
 - 5.1.1. 베드로의 일곱 번 용서는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에 비해 매우 관대한 제안(마 18:21)
 - 5.1.2. “어떤 사람이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죄를 범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네 번째는 용서 받을 수 없다.”
- 5.2. 예수님의 답변(마 18:22)
 - 5.2.1.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!
 - 5.2.2. $7 \times 70 = 490$ 번?
 - 5.2.3. 예수님의 의도는 횃수가 아니라, 언제든지 용서해 주라는 것
 - 5.2.4. 치리 중에도 ()을 잃지 않는 공동체(합 3:2)
- 5.3. 예수님의 비유: 탕감 받은 종의 비유
 - 5.3.1. 임금에게 만 달란트 빚진 종
 - A. 1 달란트 = 6,000 데나리온(1 데나리온=노동자 하루 일당) → 16년치 연봉(3,600만원x16년) = 대략 6억
 - B. 10,000 달란트 = 대략 6조원
 - C. 애당초 빌리거나 갚기에 불가능한 액수의 돈
 - D. 아마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빚대어 표현한 것으로 보임
 - 5.3.2. 임금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줌(마 18:27)
 - 5.3.3. 그 종이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(대략 1,000만원[10만원x100]) 빚진 자를 옥에 가둠
 - 5.3.4. 나중에 임금이 이를 알고 이 배은망덕한 자를 옥에 넘김
 - 5.3.5.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()! →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마땅함